

주간충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2008년 제3차 청지기훈련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24일)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예레미사 2:22)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 청지기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이라기보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는 복음의 잔치입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고 2009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번 청지기훈련은 더욱 특별합니다. “빌딩으로서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로 바뀌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주기도, 종려나무, 주의 영광, 찬송가 600장·210장, 거룩하시다, 생명의 양식, 거룩한 성)을 통해서 훈련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거하시 처소로 바뀌어 질 것입니다. (고전 3:16)

“다음에 참석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를 거당하실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의 강권감과 청지기훈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당일 훈련을 진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청지기훈련에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 26:41)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 나오십시오. (사 55:6) 아기와 어린 자녀를 위한 예배실도 준비했으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당일 많은 찬양이 예상되니 교화에 오실 때에는 기쁘게 대중통이나 카풀을 하여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십시오.

*청지기훈련 안내 및 좌석은 본지 4면 참조

제41대 장로·제21대 안수집사·제49대 권사
이번 주 수요일2부예배 시(22일) 임직예배

제41대 장로·제21대 안수집사·제49대 권사 임직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2부예배에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복음에 전심전력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직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롬 15:16)

2009년 새 일꾼 및 조직 확정

주님의 교회를 섬길 2009년 새 일꾼과 조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식함과 노련함이 아닙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히 12:2) 담대히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도구이어야 합니다. (마 16:18) 각 위원회와 교구 및 부서를 섬기실 새 일꾼들이 이번이 말려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꾼 명단은 본지 5면 참조

**다음 주일(26일), 종교개혁주일이며 찬양예배 시에는
제5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마가복음 강해 41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천 명을
먹이시다
(8:1-10)

주 잘 알고 계셨다. 자신을 따라 매우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마 3:7~8; 엡 2:3) 만약 그들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집으로 간다면 지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이 편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마 8:4) 이 말은 제자들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제자들이 누구인가?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들만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마 6:43~44; 요 6:9~10) 이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운데서 지켜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금 전까지 이방여인의 딸을 고치셨고, 귀 먹은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보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제자들의 믿음은 이전과 비슷했다. 매번 제자들의 생각에는 세상적인 방법들로만 가득했다. (마 8:14)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신 과정을 보자. 모세 스스로가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지도자가 되었는가? 아니었다. 모세가 무언가를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이나. 또한 우리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무언가를 잘 준비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는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의 대화 상대는 주로 동물들이었다. 모세가 80살이 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 모세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했다. 바로 이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사용하셨다.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하였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믿음이 말하는 제자들에게 가진 떡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마 8:4) 이전과 같이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를 놓고 기도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고, 기적은 일어났다. (마 8:5~7) 자기마다 사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 8:9)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나눈 것뿐이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의논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신 1:22~27) 아무리 밤새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민 14:1~5) 세상이 맞춘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자! 사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믿자. (마 16:16)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자. 십자가의 비밀, 영원한 진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아멘.

EZRA'S PROCLAMATION

(21)Then I proclaimed a fast there at the river of Ahava,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to seek from Him a safe journey for us, our little ones, and all our possessions.

(22)For I was ashamed to request from the king troops and horsemen to protect us from the enemy on the way, because we had said to the king, "The hand of our God is favorably disposed to all those who seek Him, but His power and His anger are against all those who forsake Him." (23)So we fasted and sought our God concerning this matter,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Ezra 8:21~23)

Ezra and his people experienced anxiety near the river of Ahava. The king of Persia finally allowed the people of Israel to return to Jerusalem. Ezra called the Israelites together to prepare for their journey home. Everyone came except the Levites. "Now I assembled them at the river that runs to Ahava, where we camped for three days; and when I observed the people and the priests, I did not find any Levites there." (Ezra 8:15) God's people wanted to worship God but they did not have the spiritual necessities. So, Ezra sent out messengers and thirty-eight Levites and two hundred and twenty temple servants responded to his call to enlist in this dangerous expedition. (Ezra 8:18~20) The whole group had reason to fear for their lives. They needed to travel a long distance with great treasure. Indeed, we all pass through worrisome periods of danger. We experience anxiety over adversaries, disease, and life's daily problems. All of these things rob us of joy, peace, and health. As Christians, God's children, where do we turn in times of danger? Today is Reformation Sunday. The church at large is falling away from the Word of God. Ezra, a true servant of God, made a very important proclamation to God's people during their time of distress. Let us open our hearts and hear God's Word.

Ezra led his people to seek God. He did not set-up a board meeting to discuss strategy. Instead, he proclaimed a time for fasting and praying. "Then I proclaimed a fast there at the river of Ahava,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to seek from Him a safe journey for us, our little ones, and all our possessions." (v. 21) In their time of danger, Ezra wanted God's people to ask for God's help. Psalm 121:1-4 say, "I will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from where shall my help com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He will not allow your foot to slip; He who keeps you will not slumber. Behold, He who keeps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Do you believe that God protects and watches over you? No matter how terrible your environment you need to look to the Lord. Ezra was in a desperate situation. Everything precious was on the line. He directed his prayers heavenward. Many of the heroes of faith have sought God in threatening times. David prayed, "When You said, 'Seek My face,' my heart said to You, 'Your face, O Lord, I shall seek.'" (Ps. 27:8) Isaiah said, "At night my soul longs for You, indeed, my spirit within me seeks You diligently; for when the earth experiences Your judgments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learn righteousness." (Is. 26:9) The Bible tells us that even Jesus prayed to His Father, "It was at this time that He went off to the mountain to pray, and He spent the whole night in prayer to God." (Lk. 6:12) Right after this prayer session Jesus picked His twelve disciples.

Daniel's remarkable prayer began, "So I gave my attention to the Lord God to seek Him by prayer and supplications, with fasting, sackcloth and ashes. I prayed to the Lord my God and confessed and said, 'Alas, O Lord,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and lovingkindness for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Dan. 9:3-4)

Ezra led his people to surrender to God, "For I was ashamed to request from the king troops and horsemen to protect us from the enemy on the way, because we had said to the king, 'The hand of our God is favorably disposed to all those who seek Him, but His power and His anger are against all those who forsake Him.'" (v. 22) Ezra wanted his people to give up all their strength and rely on God. The temptation is to look to other people for help instead of to God. The king and his soldiers could surely be a protective asset, but the people's testimony of God was at stake. They had told the king of God's power and His faithfulness. They chose to risk everything on God. Their God had destroyed the walls of Jericho and He had provided everything for them during their forty years of wilderness travel. No king could give them what God would give them. They chose not to go the way of the world, but to go God's way and seek His power. They gave God all their troubles, all their danger, and all their souls. How about your faith? If you have a serious situation do you rely on God? Do you give up your opinions and let God do His thing? God knows everything that you need and He will fill your cup to overflowing. Are you expecting that?

God saved Ezra and His people, "So we fasted and sought our God concerning this matter,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v. 23) God met them in their prayers. He listened to their crying requests. He responded to their seeking hearts. His promise gave them the answer. Remember how we were in danger because of our sin and how fear gripped our hearts over the future? When we sought the Lord we found Him through faith in His Son, Jesus Christ. Matthew 11:28 say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Are you listening? Do you believe? If yes, then practice your faith.

My dear friend, if you find yourself in a place of danger please turn to the Lord Jesus. God loves you and will come through for you. Seek the Lord and His salvation today. Reformation Sunday is a time to examine our lives and reform our hearts. All too often we handle troubles, dangers, and problems in an ungodly fashion. Sin is bad, very bad. You see and hear about it everywhere. But God is good, very good, and He will save you from all sin. He loves you. He is the All-Powerful, All-Knowing, and Ever-Present God. Trust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let God work it all out! Amen. 🙏

에스라의 선포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8:21~23)



김성관 목사

에스라와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아하와 강 가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않은 근심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사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여정을 준비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 호르는 강 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8:15)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 봉사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사람을 보냈고, 마침내 38명의 레위인들과 220명의 성전 봉사자들이 그의 부르기에 응하여 위험한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8:18~20)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위험을 느꼈만 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보호를 받고 장거리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위험이 도사리는 두려운 삶의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대적들과 질병, 인생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놓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서 기쁨과 평화란 아니라 건강까지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 에스라는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략을 의논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21절) 위기의 순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121:1~4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8:18에서 여러분은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에스라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그때에 그는 하늘을 향해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위험을 느끼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 다. 다행히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니”(사 27:8)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잠만하시는 때에 세기를 위한 의를 베푸시나이다”(사 26:9) 성경은 예수님조차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셨음을 말해 줍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눅 6:12) 이 기도의 시간 이후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다냐엘의 놀라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덮여서소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

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단 9:3~4)

완전한 항복을 선포하다

에스라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22절) 에스라는 그의 백성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왕과 그의 군사들은 틀림없이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증언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빈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여러고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40년간 땅아 길을 행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문제와 그들이 처한 위험, 그들의 영혼까지 모두 내어맡겼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잠잠히 바라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23절)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심령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때문에 우리에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움켜쥐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어려움과 위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는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여러분을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온전히 맡기십시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10. 15.)

그리스도인의 태도

(시편 97:10~12)

구원을 받아 은총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도 분명히 밝히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보다 돈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게 만든다. 지금 자신을 살펴보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인가?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며 세상의 가치와 문화도 따르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안전을 선택하자. 위험을 선택하지 말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안전을 선택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시 97:10)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중간지대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을 사랑하되 악은 미워해야 한다.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악이다. 저편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악일 것이다. 행복을 위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악이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효(孝)를 더 중시한다면 이것 역시 악이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적인 모든 문화와 전통은 악인 것이다. 인간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안전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세대를 따르며 이것저것 많은 핑계와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믿자. 이것이 제일 안전하다. 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자. 악을 선택하는 위험한 꾀계를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안전을 선택하자.

빛을 선택하자. 어둠을 선택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빛을 선택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느니라”(시 97:11) 빛과 어둠은 분명하다. 절대로 섞일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선택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어둠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악한 영들은 인격, 선한 문화,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으로 이끌려고 한다. 어둠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계략에 속지 말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골 13:12)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평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고후 6:14)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어둠을 선택하지 말고 빛을 선택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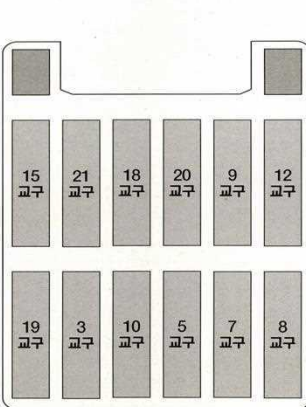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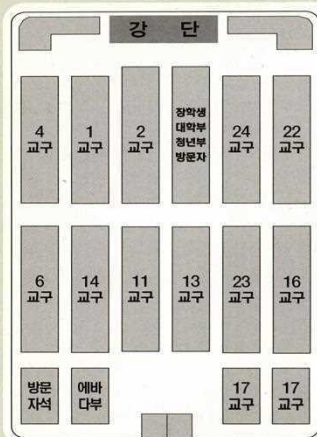
기쁨을 선택하자. 후회를 선택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선택한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시 97:12) 빛을 선택할 때 기쁨은 따라온다. 후회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특권인가!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타협을 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을 선택하자.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 늦게 후회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자.

십자가와 관계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위험하다. 모든 악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공하는 안전을 선택하자.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빛을 선택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이 기쁨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욕심은 없다. “내 욕심은 없음” 적당히 눈치를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대답이시며 진작이시니! 자기를 믿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청지기훈련 안내 및 작성

본당 1층 좌석배치

본당 2·3층 좌석배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청지기훈련 주제말씀 이해)

예배소서의 핵심주제는 교회론이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특히 청지기훈련 주제성구를 포함하고 있는 예배소서 2:19~22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신자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방인들은 이전부터 유대인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에 모여서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예수난 잘 믿으면 되지 꼭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예배소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의 생각이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을 향해서 예배소서 2:19~22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19절의 가족(친족)이라는 개념과 20~22절의 건물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결국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청지기훈련 주제말씀인 22절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어떠한 것인지 금금히 들을는가? 청지기훈련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볼 수 있다.

- 출석표에는 교구, 교사, 찬양대 등 자신이 속한 교구 및 부서를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탁아부실(0세~3세:찬양, 4세~7세:큰 방)을 운영하여도 이용하시기 바라며,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부모와 3세 이하), 베타니콜(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 주차장은 서둘러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41대 장로파탁자 주세발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 예언과 성취

I.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부자 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저 세대를 가르쳐 주는 여는 책이 아니다.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다.(요 5:39) 구약성경 39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성경 27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뵈었고 이해한다면 그것이 신약적으로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총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느껴보자.

II.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예언과 성취

1. 여인의 자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한다.(창 3:14~15) 이 말씀은 때가 되었을 때 그대로 성취되었다.(갈 4:4)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인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실 것을 예언한다.(창 22:18)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갈 3:16)

3. 유다의 족속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족속 중에 나실 것이라고 예언한다.(창 3:14~15) 또한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복종할 것이다.(창 49:8~10) 이 예언의 말씀도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마 1:1~2)

4. 베들레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한다.(미 5:2)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마 2:1~6)

5. 다윗의 왕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가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다.(렘 23:5)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 계승자 이시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을 통해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눅 1:32 ; 행 13:22~23)

6. 어린 아기로 나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다.(사 9:6) 이 예언대로 메시아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었다.(마 4:14,16)

7. 처녀에게 나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을 예언한다.(사 7:14) 하나님은 이 탄생의 예언을 다윗의 자손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취하셨다.(마 1:18 ; 눅 1:35)

8. 왕들이 경배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들의 경배를 받을 거라고 예언한다.(사 7:20~11) 이방인인 통방의 박사들을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까지 오게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신 것은 그의 통치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까지 이를 것에 대한 선포이다.(마 29~11)

9.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다.(창 17:7~8)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가 받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갈 3:16,29)

10. 아담의 씨에서 탄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씨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다.(창 22:4~5) 아브라함은 아삭을 통하여 자신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삭을 죽이지지 않으셨고, 언약대로 아삭의 씨에서 그리스도는 탄생하였다.(롬 9:7)

11. 아담의 별, 아담의 씨에서 탄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별, 아담의 씨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다.(창 28:13~14) 아담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서 모든 후손들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민 24:17,19)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마 12 : 눅 1:33)

12. 거룩한 첫 번째 아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첫 번째 아들을 예언한다.(출 13:2) 하나님은 모든 첫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밝히셨다.(눅 27:23)

13. 이새의 뿌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을 예언한다.(사 11:1~2)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 역시 언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성취되었다.(행 13:22~23)

14. 어린 아이의 학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울러 어린 아이 학살을 예언한다.(창 3:15) 하렘 왕은 인간의 욕심과 자기 왕의 자리 보존을 위하여 어린 아이를 무참히 학살하였다.(마 2:16) 어린 왕들은 항상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 했다.

15. 영원한 존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존재임을 예언한다.(미 5: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모든 영생을 버린 하나님이기때 영원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요 8:58 ; 골 1:15,17)

III.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예언과 성취

1. 유월절의 희생(백가 귀하지 않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희생이 될 것을 예언한다.(출 12:46 ; 시 34:20)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성취되었다.(요 19:33~34,36)

2. 저주로 나무에 달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릴 것을 예언한다.(신 21:23)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간을 속량하셨다.(갈 3:13)

3. 목마르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르실 것을 예언한다.(사 52:15)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요 19:28) 예수님의 십자가 상해의 목마르심은 죄로 말미암아 목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4. 거짓증거 받으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들의 거짓증거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다.(마 27:12, 36:11)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갖은 모함과 거짓증거를 당하셨다.(막 14:55~57) 그럼에도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다.

5. 뱀을 때림 (마귀를 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뱀을 맞는 수욕을 당할 것을 예언한다.(마 23:34) 예수님은 고난과 모욕당하심에 개의치 않으셨으며, 수난자의 겸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마 27:30)

6. 손과 발의 찔림 (십자가에 못 박히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찔릴 것임을 예언한다.(사 22:16) 십자가

에서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창에 열구리가 찔리실 예수님이 너무도 확실하게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요 20:27)

7. 옷을 제비 뽑는다 성경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을 예언한다.(사 22:18)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힘을 당하여 죽음 이후에 로마 병정들이 옷을 나누고 일부는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막 15:24)

8. 비방, 쓸개, 초를 줄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으며 쓸개와 초를 받을 것을 예언한다. 쓸개는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이며, 초는 포도주가 시어진 것이다.(사 69:20~21) 죽어가는 예수님은 쓸개 탄 음식과 초를 마시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셨다.(막 15:23,36)

9. 때리고 침발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과 침 발음과 때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다.(사 50:6) 예언하신 말씀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마 27:29~30 ; 눅 22:65)

10. 친구들로부터 배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롯 유다로부터 배반당할 것을 예언한다.(사 55:12~13)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신임이 두터운 자이었건만 마귀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을 팔았다.(마 26:14~16,23)

11. 멸시와 배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와 배반을 당할 것을 예언한다.(사 53:2~3)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구원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이다.(눅 17:25)

12. 곤욕을 당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할 것을 예언한다.(사 53:7) 그리스도의 침묵은 그의 비참하고 연약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우리의 엄청난 죄악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마 27:12)

13.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할 것을 예언한다.(사 31:5) 십자가에서 수난 당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다.(눅 23:46)

14. 부자로 장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에 의해서 장사될 것을 예언한다.(사 53:9) 당시의 부자인 야리매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사실에서 성취되었다.(마 27:57~60)

15. 은 삼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 삼십에 팔릴 것을 예언한다.(눅 11:12~13)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자 실망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삼십에 팔아넘겼다.(마 27:36~8)

16. 흙 없인 어린 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흙 없는 어린 양으로 성경을 예언한다.(출 12:31) 유월절의 희생양이 곧 예수님이다.(고전 5:7 ; 골 1:19)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흙 없는 어린 양이시다.(계 5:6~13, 7:14, 21:22~27, 22:3)

IV.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히 12:2) 이전의 모든 약함을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믿자(막 1:15)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앞에 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갈 2:20)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청지기(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 아멘.

주님! 저 또한 죄인이고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은 휴가를 가는 데 '주님! 전 힘들어요.'라는 불평과 또 하나는 해마다 떠나시는 습관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며 주님께 참 위로를 구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은혜 속에 선교심사를 잘 마치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 때문이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씨로 인한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비를 그치게 하시고, 사역지로 이동할 때는 굵은 장대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의 팀을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느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경전회로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평가회로 하루를 정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단점을 회개하며 다음 사역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지로 나갈 때는 주께서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였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영혼구원의 열정 또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기도할 때 나의 기도소리는 작았지만 나의 마음은 '주님! 너무나 부끄럽고 죄인인 저에게 은혜 내리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사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위의 친구들과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은혜가 너무 귀한 선교였습니.

이승하(집사, 24교구 8지역팀)

영혼구원

항상 1년에 2차례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친구가 나에게 같이 선교를 가지고 했지만 나의 상황은 늘 여의치 않았다. 은혜로운 선교 간증을 들을 때만 그저 한 번쯤 선교가 게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어느 순간 나는 믿음 없이 메달라 있는 나의 영혼을 보았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선례를 잘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어느새 나는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다. 훈련을 철저히 받았지만 처음 떠나는 선교였기에 나는 걱정이 많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다들 잘 하겠지. 나는 막내들이 '엄마, 저 학교에서 기도했어요!'라고 하였다. 나는 내심 어떻게 기도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엄마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가 경험하게 접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 아래의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는 기도의 동역자가 나의 아들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했다.

선교지에서의 나의 첫 모습은 좋지 않았다. 집을 떠났다는 불안감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인지 같은 동역자에게 날카롭게 대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기 않았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서서히 영혼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게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려 솟구쳤다. 동시에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었음에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내 속에 있었음을 회개하였다. 첫 선교지에서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곳 영혼들이 모두 귀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또한 지기를 부인하는 믿음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홍희정(집사, 10교구 7지역팀)

오, 주님 여기입니다!

2시간 이상 산길을 달려 정상까지 왔을 때 우리를 맞아 주는 것은 하늘과 진흙땀 뽀.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속소 출발 후부터 부르던 찬송과 우리 팀의 간절한 기도를 실어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찬양이 되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기 때문이다. 이때 작은 길 하나가 우리 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 나왔다. 찬송은 우리의 감사를 신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갔다. 내려가면 올라오기 힘들다는 운전기사의 말에 우리의 입술은 오직 찬송뿐이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버린 영혼을 향한 갈망뿐이었다. 차는 덜컹덜컹하며 진흙길을 내려갔다. 조금 내려갔을 때, '오! 주님 여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후 축하전도가 시작되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었다. 단속경찰에 대한 염려는 어느덧 사라지고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코자 하신 영혼들에게 바쳐질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 달라고 간구하는 발걸음이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담대히 전하게 하겠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의 사람들, 골목길을 빠져 나와 공터에 이르렀을 때 여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처음 듣는 예수님의 이름, 수줍은 듯 받아든 전도지를 읽고 또 읽는다. (예수 사랑하심)의 찬양이 그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열정기도를 마치고 주님께 그 영혼들을 부탁하며 뒤돌아보면서 그들을 보니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전도지에 쓰인 복음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나영실(권사, 17교구 1지역팀)

아, 이것이었구나!

어느 비 오는 수요일, 수요일에 후 팀원들과 양화전을 방문했다. 외국인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힘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도 병에 걸려 죽었음을 보았다. 우리가 가는 곳들도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리도 그런 분을 먹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교지를 향하여 갔다. 떠나기 전에 조명의 어려움이 있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보내주시면 갈 수 있겠지.' 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다.

선교지에 와 보니 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파리와 모기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는 채 살고 있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넓은 초원에는 말과 양과 소뿐이었고, 어쩌다 만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면 우산만 잔뜩 켜고 있었다.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고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을 못하는 아저씨 한 분을 만났다. 식구들에게도 구약을 받고, 식구들조차 그를 귀찮아했다. 그는 우리를 반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말씀을 받았다. '몇 마디 알지 못하는 말로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그가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하는 의심도 생겼지만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했다. 마지막에 우리 셋에서 불독과 우리말로 기도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다. '아!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언어는 달라도 이것이 천국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으며 너무 감사해서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

한 어린 아이는 토박이파라 주기도문까지 읽었는데, 그 눈동자에서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의 미래, 그 소년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했다. 길이 험해서 어려웠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였고, 찬송하게 하였고, 천국도 보게 하였고, 미래를 보게 하셨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게 하셨다. 비록 몸은 고되고 피곤하였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선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영숙(권사, 14교구 3지역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	---	-----

10월 13일(월)~10월 22일(수) 22교구 7지역팀 신대열

2009년 CMTC훈련 11월 2일·9일 찬양예배후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44	김현철	12 장년1부 박재민(8)	1753	정장현	15 중동부		
1745	최현현	18 청년1부 박재민(8)	1754	김현하	25 외선부 이수재(16)		
1746	정현하	13 장년2부	1755	최정원	3 장년2부		
1747	이은혜	16 장년2부 조영민(4)	1756	김정선	3 장년1부		
1748	홍숙자	1 장년2부 고진숙(1)	1757	이정자	21 장년2부 김필옥(24)		
1749	송혜원	9 청년2부 김진영(8)	1758	윤윤리	15 외선부		
1750	정장현	1 장년3부 정영민(2)	1759	도희라	19 외선부		
1751	김 수	21 장년2부	1760	김정민	15 청년1부		
1752	김현하	15 청년1부	1761	박복진	3 대북부 김연희(3)		

* 훈련회장의 한 가족이 되기를 전하는 분은 훈련 2009년 2학기 등록필수 요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남·녀전도회 회장 월례회
일시: 26일(다음 주일) 15:
장소: 제1교육관 407호

별 서

- [illegible]

경 모

- [illegible]

2008년 제3차 청지기후련

주 제 :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에베소서 2:22) 대 상 : 모든 성도들
일 시 : 10월 24일(금) 저녁 7시 강 사 : 김성관 위임목사

8교구 총동원 전도주일

일 시 : 10월 19일(오늘) 14:00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

테시아 찬양연습

일 시 : 9월 21일 ~ 12월 19일, 매주일 18:10 장 소 : 니시렛홀 대 상 : 모든 천양대원

만도린 연주대 대원모집

연습 : 매주 목요일 10:00 나사렛홀 문의 : 011-305-8653, 010-3923-2516

2008년도 제5차 학습 및 세례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0월 19일 (오늘)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황진성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유재진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2 (이정진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10월 26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일실무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일일실무	

새벽기도회 (10/20~10/26)

	20 (월)	21 (화)	22 (수)	23 (목)	24 (금)	25 (토)	26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장철규	안치원/최동삼	정충신/이상배	양재웅/여영호	이성진/유승열	이재명/최문실	이광현/전은희
설 교 본 문	막 8:22-26	골 20:33-44	골 20:45-49	골 21:1-7	골 21:8-18	골 21:19-32	골 22:1-16

예배 담당 (10/22~10/26)

주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0/22	소요 I	은혜만찬 (주 91:1-2) 김성관 목사	김환수	노병문	주 날개 밑에 편안히 쉬네 (호산나 찬양대)
10/22	임예배	둘들이 소리 지르라네 (눅 19:28-40) 배정연 목사	김성관	정진호	축복 (신로안 찬양대)
10/24	창가환권	하나님이 가하실 적소 (렘 2:22) 김성관 목사	정진호	김철환	주님에게 새운 교회 (연합찬양대)
10/26	주일 I	에사이의 선보 (스 8:21-23) 이광현 목사	강현철	조종환	(예배 전 찬양)
10/26	주일 II	에사이의 선보 (스 8:21-23) 김성관 목사	강명규	김성관	어느 민족 누구냐와, 바울로님 주님께(원형루아 오페스트라 악장)
10/26	주일 III	에사이의 선보 (스 8:21-23) 김성관 목사	장 훈	박덕양	결함없는 바나나를 바를 불의 / 버리므로 오실(비행선)원형루아 오페스트라 악장
10/26	주일 IV	에사이의 선보 (스 8:21-23) 강경전 목사	강호철	이재현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 물결 건널연(원형루아 오페스트라 악장)
10/26	주일 V	에사이의 선보 (스 8:21-23) 강경전 목사	유현철	조준민	바리새는 하늘에 / 프르노아 이온미, 가면의(비행선)원형루아 오페스트라 악장
10/26	주일찬양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하는가 (눅 24:40-49) 김성관 목사	이성진	김성관	가브리엘 혼성찬양단, 가면 찬양대, 14교구

10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10월 24일 금요일양양교회 시에 있을 2008년 제2차 정기총회(이하나눔이 거처실 처소, 제2차)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② 교회의 방패와 성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생애(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③ 임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어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④ 사면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16개)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와 같은 교회(마 18:20)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⑤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9: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는 선교파, 보리스 선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⑥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일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⑦ 매일의 통독하는 새가톨릭이 거듭나 보편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상행 전양리를 통하여 금요일양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통사하게 하소서.
- ⑧ 총련의 제단(유지·동산·북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니 현재 추진 중인 양양면, 남급시 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기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침양예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일양집회		저녁 7:00
세백기도회		매일 새벽 5:00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철야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Ⅲ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Ⅳ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와 타이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부 들 사	정전호 12구구구구구	김학한 12구구구구구	장 훈 12구구구구구	이희식 12구구구구구
박기근 9구구구구	안지현 9구구구구	장준식 9구구구구	양재호 9구구구구	이성진 9구구구구
하준철 9구구구구	김종표 9구구구구	유수인 9구구구구	황진식 9구구구구	유재진 9구구구구
이계영 9구구구구	김종표 9구구구구	유수인 9구구구구	황진식 9구구구구	유재진 9구구구구
강영미 9구구구구	김정호 9구구구구	양태선 9구구구구	박민현 9구구구구	박정현 9구구구구
김기현 9구구구구	최철우 9구구구구	최정진 9구구구구	유용현 9구구구구	강정현 9구구구구
이광민 9구구구구	강조성 9구구구구	유요환 9구구구구	김기영 9구구구구	박준식 9구구구구
최진철 9구구구구	장민정 9구구구구	김정성 9구구구구	이재환 9구구구구	이순식 9구구구구
안일찬 9구구구구	유종호 9구구구구	김성훈 9구구구구	조영환 9구구구구	
◎ 사명부서 선반식			◎ 강 도 사	강영기 9구구구구
◎ 저도사단				
윤일근 15구구구	김민식 3구구구	홍순애 15구구구	이광주 15구구구	김길자 15구구구
김정민 20구구구	강덕열 20구구구	최본식 20구구구	전선희 20구구구	김정자 20구구구
김정희 20구구구	이복순 20구구구	류진희 20구구구	한은일 20구구구	김정자 20구구구
강영미 20구구구	이복순B 20구구구	전영희 20구구구	이혜숙 20구구구	
정영환 24구구구	강정호 24구구구	강정호 24구구구	강정호 24구구구	서미란 24구구구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고등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01호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후 8:0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청년 1부	오후 5:15	배다니홀
소망부	오후 12:15	길 댈미홀
사람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목/화) 오후 1:00(일/장)	제2교육관 1층
타아부	(주) 2월 8일 오후 6:00 (금) 6월 3일 오후 6:00	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다니홀
국회의원연설회	오전 11:00	야만홀
출생연미이집	주간교육관	제1교육관 107호
국회의원연설회	주간교육관	출생미이집